

너부터

80

2017 상반기

〈나눔터〉 80호를 함께 만든  
기자단♥을 소개합니다.



상담소임당\_곰지



스마일정화\_정화



순수소행성\_동동



예비볼펜리\_수진



아무개제인\_재은



눈내리는봄\_경현

퍼넌곳 (사)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넌이 이미경 퍼넌날 2017년 8월 10일 만든이 노선이 디자인 디자인이즈  
주소 (04072)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합정동 366-24) 2층 한국성폭력상담소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 4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4 제126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 7 여성 스스로 내 몸의 주인됨을 외치다!
- 10 여성에겐 모든 곳이 강남역이다
- 13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 16 국제연대, 차근차근 한 걸음씩

#### 22 퓌다!상담소

#### 24 열림터 다이어리

#### 26 상담통계

- 26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통계 분석

#### 29 성폭력과 사람들

- 29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 32 열림터생활인의 글
- 34 성폭력 수기 투고글

#### 39 만나고 싶었습니다

- 39 상담소 OLD & NEW\_자원활동가편

#### 43 성문화읽기

- 43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에서 본 균형법 92조의6 폐지
- 46 할레의 아픔을 딛고 피어난 사막의 꽃 <데저트플라워>

#### 48 시끌시끌상담소

- 48 여성주의 자원활동의 본거지, 나눔터 기자단 “Meka”의 탄생
- 51 최란 주니어 온이의 상담소 첫 나들이
- 52 상담소 활동가 들고나기

#### 53 아낌없이 주는 나무

- 53 후원회원 명단
- 55 후원방법 안내

#### 56 훈훈한 기부

# 제126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동동\_나눔터 기자단 Meka 1기

1992년 1월 8일부터 지금까지 25년을 넘는 긴 세월동안  
매주 수요일에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어김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상담소는 2004년부터 올해로 14년째 연회의 정기수요시위를 주관하는  
연대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2017년 2월 8일 제126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본 상담소 주관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2015 한일합의를 폐기하라!"를 힘차게 외치며, 대학생공동행동의 '바위처럼' 울동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추운 날씨에도 참석하여 수요 시위의 의미를 되새겼는데요, 지나가다 우연히 모여 있는 인파를 보고 들러주셨던 분도 있었고 매주 빠지지 않고 찾으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날 상담소의 활동가들은 인턴활동가 박초연님이 제안해 준 '거위의 꿈' 수화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활동가들은 공연을 위해 매일 매일 일하는 시간을 쪼개어 연습을 했는데, 결코 쉬운 동작이 아니었음에도 실수 없이 잘 해냈습니다. 손짓 하나 하나에 담긴 진심이 그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거위의 꿈' 가사처럼 차가운 벽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받는 날까지 굳센 연대로 함께 할 것을 다짐하는 활동가들의 눈빛에서 역사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대협 상임대표 윤미향 님은 경과보고에서 "우리가 지지하지 않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나날이 함께하는 이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고 힘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본 정부는 책임의 도적으로 부인하며 진실을 은폐하고 있고 한국 정부 또한 기만적인 양국 정부의 합의와 교과서 왜곡을 통해 이 문제를 흘려보내려고 합니다. "진실을 우리 손으로 규명하고 수요시위를 이어나감으로써 일본 정부에게 계속 책임을 물어 나가야 한다."는 다짐으로 경과보고가 끝났습니다.

기억에 많이 남았던 자유발언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의 신입활동가 배의 발언이었는데요, 배는 발언을 통해, 일본군 성노예제가 오랜 기간 단지 양국 정부 사이의 외교 논리로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이 문제는 단순히 외교적 갈등 사안을 넘어 인류 역사의 무거운 폭력이며 가부장제 아래의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문제의식을 촉구하였습니다. 인권은 정치 외교 안보 논리로 좌지우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는 여성에 대한 참혹한 폭력이 없도록 함께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마지막에는 소장인 이미경 활동가와 사회자인 박초연 인턴활동가가 함께 성명서를 낭독하며 수요시위를 마쳤습니다. 🙋



### 제126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1992년 1월 8일부터 시작한 수요시위가 올해 26주년을 맞이하였고 오늘, 1269번째 수요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 한일 정부는 우리가 그동안 외친 목소리를 모두 무시하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당사자'인 피해자들에게 사전에 의견을 구하거나 어떠한 소통도 없이 졸속 합의를 강행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제대로 된 사죄 없이, 부산 일본대사관 앞 평화비가 설치되자 2015한일합의의 약속을 지키라며 평화비를 철거하라는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다.

박근혜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015한일합의를 국가적 최선의 합의였다고 주장하고, 일본의 요구에 '적절히 해결하겠다'라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합의 문서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며 2015한일합의에 대한 진실을 숨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이를 비판하고 우려하는 소리들을 정부는 왜 듣지 못하는가? 도대체 한국 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과거 지우기에 앞장서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고, 2015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라. 졸속 합의로 생겨난 화해와치유재단이 명확한 기준도, 피해자와의 소통도 없이 10억엔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를 또다시 기만하는 행위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 생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화해와치유재단을 조속히 해체해야만 한다.



올해부터 일본은 역사 교과서에 '위안부' 문제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강성을 부인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않으며 외면하고 있다. 한일 정부는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록하여 왜곡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본 정부는 전쟁 범죄와 성노예제 문제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사죄하라.

우리는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군성노예제 당사자인 피해 생존자들과 함께 이 자리를 지킬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한일 정부는 2015한일합의를 전면 폐기하라.
- 한일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해 속히 진상규명하고 역사 교과서에 기록하라.
- 한국 정부는 화해와치유재단을 해체하고 생존자들에게 정식 사과하라.
-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전쟁 범죄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법적 배상하라.

2017년 2월 8일  
1269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참가자 일동

## 여성 스스로 내 몸의 주인됨을 외치다!

〈진상퇴치비법수행: 2017 가가가 참가 후기〉

노경현\_나눔터 기자단 Meka 1기

본 상담소의 번역서인 『미녀, 야수에 맞서다』 슬로건처럼 여성이 자기 방어를 시작할 때 세상은 달라집니다. 이러한 목표의식을 갖고 한국 여성을 위한 자기방어훈련의 필요성을 배웠고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합정동에 위치한 스쿨오브무브먼트에서 배운 소중한 자기 방어 훈련 후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영화 <미녀와 야수>의 벨이 애초에 야수의 성에 간혀있지 않을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했을까? 실질적으로 여성 스스로 자기 몸의 주인으로 살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 남성의 폭력과 거친 행동에 비해 여성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체 행위를 전 생애에 걸쳐 학습해왔다. 이 세상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틀인 성별이분법은 우리 자신의 신체를 사용하는 방법도 통제한다.

많은 소녀들은 자라면서 신체 활동에 있어서 의기소침한 태도를 갖게 된다. 여자아이들에게 공격을 당할 때 스스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매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성에게 주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면 여성 스스로 자기 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삶 속에서 당당히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상담소 자기방어훈련을 처음 경험해보게 되었다. “여자아이”로서 어려서부터 사실상 몸을 쓰는 운동 자체를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었다. 친오빠

가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 여동생인 나는 피아노 학원을 다녀야 했다. 나 역시 여성에 대한 길거리 괴롭힘을 경험했지만 소위 '얼음(Freeze)' 상태가 되어 적극적으로 당당하게 대처하기는 힘들었다.

내가 참여한 자기방어훈련은 일주일에 한번 씩 3주 동안 진행되었다. 첫 주에는 간단히 몸을 깨우는 법부터 배웠다. 가볍게 뛰기부터 시작해서 가벼운 1대 1 게임도 했다. 상대방의 어깨를 치면서 자기 자신의 어깨를 방어하면서 순발력과 방어를 동시에 연습하는 것이었다. 한 명을 중심으로 여러 명이 둘러싸고 서로 바라보며 하는 게임도 정말 재밌었다. 이런 게임뿐 아니라 그 후에도 이론적인 설명으로 스탠스를 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자연스럽게 게임을 하면서 느꼈던 감각이어서 더 이해가 잘 되었다.

실제 사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인상적이었던 전략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Freeze' 당할 수 있지만 그러한 'Freeze'를 상대방에게도 역으로 되돌려주는 전략이었다. 누군가를 공격하는 사람은 대개 공격대상이 자신보다 약하다고 간주하고 공격을 하는데 역으로 위협을 보여주면 그 공격자 역시 예상과는 다른 상황에 당황하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동안 배웠던 동작을 합쳐서 위협을 당하기 시작한 처음부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는 마지막까지 연결동작으로 연습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역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다. 누군가에게 “하지마!”라고 소리쳐본 것, 그리고 당당히 팔로 방어와 반격을 해보는 것이 처음이었고 낯설었다. 하지만 서로를 응원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했고, 내 목소리, 팔과 다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하고 파괴력이 있다는 것을 점차 깨달았다. 이 훈련을 통해 모든 여성은 자기방어로 당당하게 위협을 떨쳐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 지속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세상이 달라질 것이라 믿기 때문에 이러한 훈련이 많은 곳에서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자기방어훈련을 경험해보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수업을 들을 것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



# 여성에겐 모든 곳이 강남역이다

〈강남역여성살해사건 1주기〉

감이\_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2016년 5월 17일.

강남역에서 여성살해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사회에 만연한 여성혐오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강남역여성살해사건〉의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을 추모하고,

여성혐오에 정면으로 맞서는 연대행동이 전국 곳곳에서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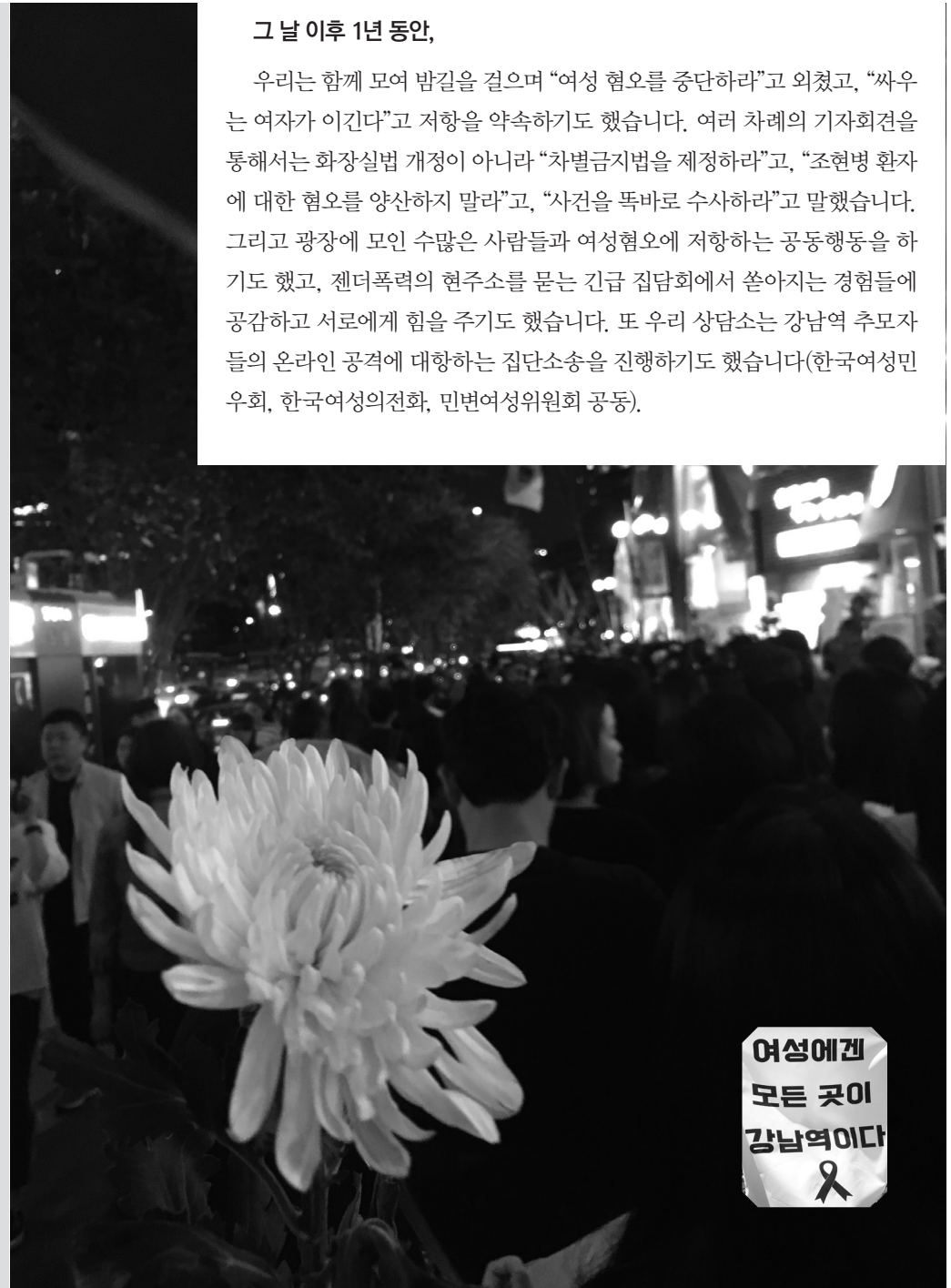
## 1년 전 그 날,

뉴스 기사 한 줄로 지나갈 수도 있었을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언론에서는 <묻지마 사건>으로 명명하고자 했던 그 사건은 일상에서 그와 같은 위협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경험으로 재조명되어, <여성혐오 살해사건>으로 다시 명명되었습니다. 강남역 10번 출구를 뒤덮었던 수 만장의 포스트잇은 고인을 추모하는 의미를 넘어 “우연히 살아남았다”라는 메시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성으로서 혹은 소수자로서 살아가는 혹독한 경험들을 드러내는 계기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성들의 호소와 울부짖음에 귀를 막아버린 곳도 있었습니다. 당시 경찰에서는 가해자의 특성을 빌미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이라고 호도하며 정신증 병력을 가진 시민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였고, 정부에서는 “남녀분리 화장실 법 개정”을 하겠다며 ‘남의 다리 굽는’ 엉뚱한 정책마련을 내놓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였습니다.

## 그 날 이후 1년 동안,


우리는 함께 모여 밤길을 걸으며 “여성 혐오를 중단하라”고 외쳤고, “싸우는 여자가 이긴다”고 저항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화장실법 개정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조현병 환자에 대한 혐오를 양산하지 말라”고, “사건을 똑바로 수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과 여성혐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을 하기도 했고, 젠더폭력의 현주소를 묻는 긴급 집담회에서 쏟아지는 경험들에 공감하고 서로에게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상담소는 강남역 추모자들의 온라인 공격에 대항하는 집단소송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민변여성위원회 공동).



그리고 2017년 5월 17일.

우리는 또 다시 광장으로 나왔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에 죽음으로 내몰린 고인을 추모하고, 살아남은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화문에서, 신촌에서, 홍대에서 이어진 포스트잇 퍼포먼스와 신논현역에서의 추모문화제, 그리고 추모행진을 지나는 많은 시민들이 “벌써 1년이 되었구나”라고 되뇌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1년이 지난 오늘, 무엇이 그대로이고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 포스트잇을 꺼내어 들었습니다.

이 거리가, 이 광장이 나에게도 온전히 평화롭기를.

여성의 이름으로, 사회적 약자의 이름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성폭력 가해자의 역고소에 대한 피해자의 반격〉

정화 나눔터 기자단 Meka 1기

올 초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이하 판례뒤집기) 기획단을 모집한다는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기획단에 참여하겠다고 답장을 했고, 이 선택은 올 한 해 동안 제가 가장 잘한 일 중 하나입니다.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성폭력 판례뒤집기’는 매년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진행하는 큰 행사 중 하나입니다. 상반기에는 모의법정을 하반기에는 토론회를 진행합니다. ‘모의법정’은 현재 성폭력 판례에 대한 비판과 이상적인 법정의 모습, 판결문을 보여주는 취지로 만들어집니다.

올해 2월 27일 판례뒤집기 기획단은 처음 만났습니다.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활동가 앓음 중심으로 총 6명의 기획단은 수줍은 첫 회의를 마쳤습니다. 모의법정의 주제를 잡는 것부터 배역을 섭외하는 일까지 모든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획단은 저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판례와 기사의 목록은 많아졌고 기획단의 토론은 뜨거워졌습니다. 주제를 잡기 위해 성폭력 관련 판례와 기사를 읽으며 분노하기도 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공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주제는 무고죄와 대학 내 성폭력. 기획단의 대부분이 대학 내 성폭력 주제에 특히 공감했습니다. 또한, 한창 뜨거운 주제인 무고죄도 꼭 다뤄야겠다는 욕심에 모의법정에 대한



열의는 커졌습니다.

매주 1회씩 하던 회의

가 2회로 늘어나면서 모의법정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느낌에 초조하기도 했습니다. 각각 모의법정의 배역을 맡고 대본 초안을 작성하고 판결문을 쓰며,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간을 붙잡고 싶었습니다. 기획단은 ‘과연 모의법정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에 마음이 조마조마했고, 담당자인 얇은 모의법정을 망치는 악몽을 꾸기도 했다고 합니다.

판례뒤집기 당일, 모의법정은 이화여대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의 모습이 재현된 곳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활동가와 기획단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간이 임박할수록 방청석이 채워지고 제 머리는 하얘졌습니다. 몇날 며칠을 달달 외운 대사가 생각나지 않고 대본의 글씨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프닝 영상과 함께 영화처럼 재판이 열리고 검사와 변호인의 공방이 펼

쳐지면서 저도 방청객이 된 듯 재판에 몰입했습니다.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피고인을 썰렁하기도 하고 피해자의 증언에 가슴이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증인인 제 차례가 다가왔을 때, 저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제가 의지할 곳은 미리 만들어 놓은 컨닝페이퍼용 대본 한 장밖에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어떻게 티 나지 않게 컨닝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막상 증인석에 앉아 정말 검사와 변호인처럼 연기를 해주는 주미와 민지 덕분에 저도 피해자의 친구가 된 것처럼 대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이 막바지에 달하면서 방청객의 열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검사와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해자 변호사의 최후변론,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최후변론까지.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잘못은 “남자로서 성욕을 참지 못한 것”이라는 발언을 함으로써 방청객을 웃게 만들었고, 피해자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함으로써 방청객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성황리에 막을 내린 모의법정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성폭력 사건들이 제대로 다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폭력 생존자들이 소송하기까지 어려움도 따르고, 소송 중에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해 더욱 힘든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원에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 판결은 성폭력 생존자를 더욱 움츠리게 합니다. 이번 모의법정을 통해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그 해결을 위해 힘쓰길 바랍니다.

판례뒤집기 기획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제게 큰 행운이었으며 제 삶에 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항상 성폭력 문제와 싸우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의법정을 함께 한 기획단 예은, 민지, 주미, 채린과 얇 활동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



# 국제연대, 차근차근 한 걸음씩

이미경\_본 상담소 소장

우리 상담소는 개소하던 1990년 초기에 미국과의 연대를 통해 그들이 1970년대 이후 상담소 및 쉼터를 운영하던 노하우를 배웠고, 1995년에는 활동가들이 북경세계여성대회에 참석했다. 2005년에는 한국에서 열린 세계여성학대회에서 “세계의 반성폭력운동” 세션을 운영하였고, 매년 여성연합과 함께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에** 슈도우 리포트 등을 제출 해오고 있다. 해마다 대만, 일본, 홍콩, 미국, 호주 등의 유관단체 방문을 통해 개별적, 조직적으로 연대를 다져왔다. 올 상반기 우리 상담소는 UNDP, KOICA, EGEP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천천히, 그러면서도 꾸준히 국제연대를 해오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본 상담소의 블로그 [원대 한국성폭력상담소http://stoprape.or.kr/]를 참조해주세요.

## ● 1월 10일

### EGEP(Ewha Global Empowerment Program) 공개강의 세미나 발제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가 주관하는 EGEP 참가자들을 위한 공개 강의 세미나에 참여했다. EGEP는 아시아, 아프리카 여성 NGO 리더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여성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인도와 한국, 각국의 페미니즘 운동 사례를 통해 새로운 페미니즘 운동과 초국적 연대 전략을 함께 토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먼저, 인도에서 여성 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파멜라 필리포스(Pamela Pilipose) 활동가가 인도의 반여성폭력 운동의 방향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두 번



● 두 발제자의 발표 후 이어진 종합토론

째로는 본 상담소 이미경 소장이 ‘한국 반성폭력운동의 도전과 희망’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토론의 주요 주제는 ‘남성의 참여 및 연대를 어떻게 바라 봐야 하는가’였는데, 성폭력의 경우 ‘남성’ 피해자, ‘여성’ 가해자인 경우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남성과 어떻게 연대할 것인지에 대해 열린 토론이 진행되었다.

## ● 4월 20일

### UNDP, “젠더기반폭력 문제해결에 대한 서울담화 : 한국과 세계의 경험 공유” 발표

지난 4월 20~21일 이틀 동안 베트남, 르완다, 콜롬비아, 세네갈 등 12개국의 공무원 및 NGO활동가,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여성기구(UN Women), 유엔인구기금(UNFPA) 전문가 등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인 ‘2017년 서울담화’에 참여했다. 이 회의는 ‘젠더기반 폭력 근절 및 예방관련 경험과 지식 공유’를 논의하는 자리로, UNDP 서울정책센터, 외교부, 여성가족부가 공동주최하였다. 총 10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각국의 젠더폭력 현황 및 대응책을 소개하는데 우리상담소는 한국의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을 발표했다. 마지막 종합토론으로, 각 국가별로 이번 ‘2017 서울담화’에서 무엇을 얻었는지를 조



● 르완다의 대중교육 장면 : 남성자원센터(자료: 피넬레 루타이시레 대표의 발표자료 중)

별로 토론하고 발표하였다. 각국 참가자들은 한국 해바라기센터의 원스탑 지원과 서울시의 안심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르완다의 새로운 남성성 모델도 각국에서 수입하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였다. 또한 한국의 여성운동이 법제도를 바꾸고 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앞서 왔다는 점도 매우 인상적이라고 했다. ‘제도화의 양날’에 주목해야 하며, 여성운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피해에 대한 공동의 대처가 필요함도 공유했다.

● 5월 6-7일

UGJM(Unconference on Gender Justice Movement) 참가 & 홍콩의 여성네트워크 (Network for Women in Politics)에서 주최한 “반(反) 컨퍼런스(Un-conference)”에 참여

홍콩, 대만, 중국, 마카오, 한국에서 온 130여명의 활동가, 학생, 시민들이 참여해 기존의 가치, 체제에 반대하며 틀에 박힌 회의를 벗어나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자는 회의였다. 패널들의 발표와 함께 두 개의 특별한 세션이 진행되었는데 살아있는 역사를 이야기하는 <휴먼 라이브러리>와 지역운동,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세대간 갈등(운동의 지속가능성), 성소수자

권리 문제를 4명의 긴급 환자로 설정하여 문제를 제기한 <긴급세션>이 인상적이었다. 그동안 각자 여성운동, 노동운동 등을 치열하게 해왔지만 ‘과연 우리 사회는 변화했는가?’라는 질문에 긍정적 답변보다 산적한 문제들을 더 보게 된다는 것이 참여자들의 공통적인 견해였다. 특히 젊은 활동가들은 빠른 시간에 성과를 얻기를 바라고 있지만, 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세대별로 더 소통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를 위해 작은 현상에도 관심이 필요하고 각 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다양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각자에 맞는 운동을 해 갈 것인가는 과제로 남겼다. 특히 젠더평의를 위해서는 성평등 문제 뿐만 아니라 성소수자의 권리로 확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공유했다.

● 새로운 상상력을 열어가자는 공동 퍼포먼스



● 이틀동안 각자의 활동을 공유하고 함께 논의한 참여자들



● 5월 8일

홍콩성폭력상담소 방문

홍콩의 유일한 성폭력상담소를 방문했다. 여성의 권리와 성평등,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의 종식을 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NGO로 1997년 개소한 상담소는 2000년부터 24시간 피해자에게 워싱턴 서비스를 하고 있고, 특히 의료지원 및 전문 심리상담을 주로 하고 있었다. 상담소는 7명의 활동가들이 주야로 근무를 하고, 저녁에는 교대로 전화를 착신해서 급한 지원사건이 생기면 집에 있다가 택시로 사무실로 달려온다고 한다. 사무실의 한쪽 면에는 각종 캠페인에 사용하는 물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상담실과 피해자분의 산부인과적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침대 및 큼직한 샤워실이 눈에 띄었다. 홍콩 성폭력상담소는 처음에는 여성 피해 당사자 지원에만 관심을 가졌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여성들에게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최근에 조력자의 역할을 강조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한다. 특히 남성들에게 단지 “강간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성폭력 없는 사회를 만들어 가자”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한다. 관련 동영상은 미술대학생들의 재능 기부로 만들어졌는데 지하철성추행을 못본채 하는 주변인을 성찰하게 하는 17초짜리 영상이 인상적이었다.

홍콩성폭력상담소 활동가들은 우리 상담소의 생존자말하기대회에 큰 관심을 보였고, 올 가을 행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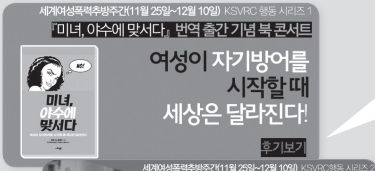


● 조력자 되기 캠페인 굿즈들 : 뱃지, 포스트잇, 자, 비닐주머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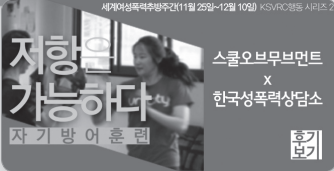
● 미국 올랜도 LGBT센터에서

이 외에도 2월 17일에는 DAK 젠더분과 주최로 영화상영회를 진행하였고, 3월 15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EU 공공 워크숍인 “온라인 젠더기반폭력 근절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에 활동가들이 참석했다. 그리고 5월 25일-6월 5일까지 상담소 상근활동가 국제연대 프로그램으로 안선민 활동가가 작년 미국 올랜도에서 성소수자 혐오로 발생한 총기사고 1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LGBT 올랜도센터, 플로리다 범죄피해자센터, 여성자료센터(Women's Resource Center) 등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또한 7월에는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썸머스쿨에 참여하는 학생들과 아시아-아프리카 지역 NGO활동가들, 아시아 4개국 공무원들이 본상담소를 방문해 함께 젠더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경험과 지혜를 나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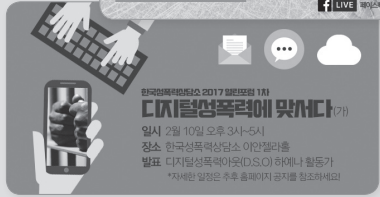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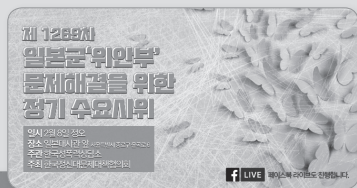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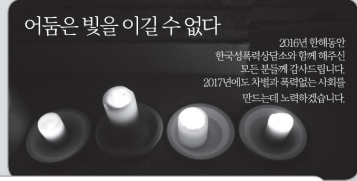
**2016년 12월**

- <미녀, 야수에 맞서다> 출간
- 북콘서트와 자기방어훈련
- 유명연예인 박00에 의한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활동(진행중)



**2017년 1월**

- 박근혜 퇴진 시국 집회 참가
- 제 26차 정기총회



**2월**

- 제 1269차 정기 수요시위
- 열린포럼 <디지털성폭력에 맞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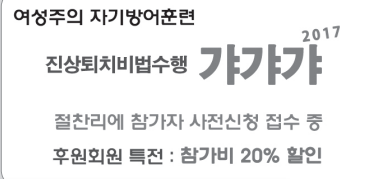
**3월**

- 3.8 세계여성의 날 <페미니스트 광장>
- 차별금지법 제정하라! <현장의 목소리로 젠더폭력 근절 정책을 밝히다> 정책 토론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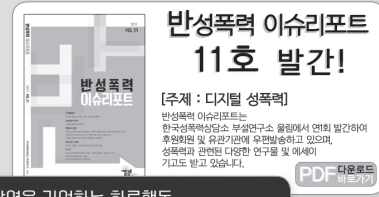


**4월**

- #2540-1991 문자후원 시작!
- 자기방어훈련: 가가가 2017
- 상담소 개소 26주년 기념 떡돌리기
- Vote for Feminism



핀다 상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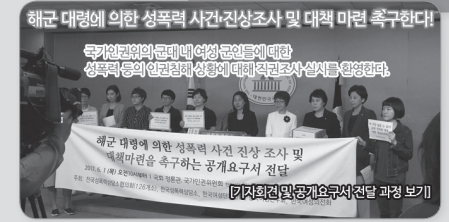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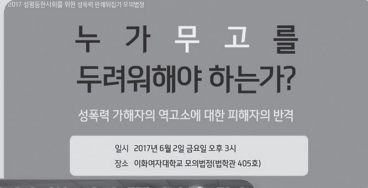
핀다 상담소

**5월**

- 반성폭력이슈리포트 11호 발간
- 균형법상 추행죄 폐지 청원과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제대로 된 수사 촉구
- 강남역 1주기 공동행동

**6월**

- 모의법정-누가 무고를 두려워해야 하는가
- 군대 내 성폭력 사건 제대로 된 수사 촉구
- 상근활동가 / 상담활동가 MT



# 열린터 다이어리

2016.12  
2017.5

12월



♥ 2016년 한 해 동안 열린터에는 10명이 입소를 하고 7명이 퇴소를 하였습니다. 입소 당시 예정했던 기간 동안 생활할 이도 있고 잠깐 동안 머물다 간 이들도 있지만 그들이 어디에서 생활하더라도 열린터에서의 시간들이 힘이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많은 후원자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열린터 식구들의 일상은 보다 따뜻할 수 있었습니다. 매달 보내주시는 소중한 후원금,

유기농야채와 건강식빵, 원 예치료를 위한 생화, 명절마다 보내주시는 다양한 먹거리들과 직접 만드신 수공예품들, 음악회티켓 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후원의 손길들은 우리 열린터 식구들이 활기차게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커다란 힘이 되었습니다.

1월



♥ 추위가 깊어지는 계절, 새해를 맞았습니다. 방학으로 혹은 일상생활로 한동안의 쉼표를 즐겼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할까 혹은 무엇을 배울까 고민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잠깐 머뭇거리거나 다른 것에 몰두하다 새해의 첫 번째 달이 훌쩍 지나갑니다. 편안하게 비워진 공간은 또 다른 새로움으로 채워지리라 기대합니다. 설을 맞아 정성이 깃든 감사한 선물들로 열린터는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2월



♥ 티라미슈케이크만들기! 생활인들과 티라미슈케이크를 만들어 보라며 후원자님이 손수 수업 동영상 제작해 보내주시고, 잔 재료 하나하나를 빠짐없이 보내주셔서 난생처음 '나를 위한, 너를 위한' 케이크를 만들었습니다. 달콤하고, 맛있고, 감사하고, 또 하고 싶고 그런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손의 재미가 주는 감동, 제대로 느꼈습니다!

3월



♥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꽃망울이 움트기 시작하는 초봄을 맞아 열린터 식구들은 개학, 직업훈련, 취업 등으로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이 달에는 치유회 복프로그램으로 <글쓰기 수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매주 은유 강사님이 추천한 책을 읽기도 하고 짧게나마 자신의 글을 써보고 나누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면서도 잠시 짬을 내어 나눔 객석으로 진행된 발레공연을 감상하는 여유로움을 즐기기도 하였습니다.

4월



♥ 열린터에 살고 있던 호접란이 겨우내 부족한 물도 보충하고 몸을 잘 살피우더니 가지를 조금씩 뺏어가 소식도 없이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학교생활과 일에 익숙해져 하루를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글쓰기 수업 숙제가 힘이 들어 고민 중임에도 의젓하게 참여합니다. 봄의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생활의 중심에서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5월을 맞이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5월



♥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열린터에서는 전주로 봄나들이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첫날엔 하늘하늘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손에는 꾸미꾸미 먹거리를 들고 한옥마을 곳곳을 누비며 인생샷을 건지고, 해질 무렵엔 활력 넘치는 야시장을 돌며 생동감을 들이마셨습니다. 둘째 날엔 아기자기한 벽화마을을 구경하며 소박한 여유로움에 취해 헤롱헤롱 보았지요@@ 돌아오는 기차 안, 전주의 명물 초코파이를 한 입 가득 베어 물며 행복한 미소와 함께 휴식의 끝을 더욱 달콤하게 마무리 했습니다.

## 2016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동향 분석

본 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26년 동안 총 79,748회의 상담을 해왔습니다. 2016년 전체상담은 2,224회(1,501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070회(1,353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1%입니다. 본 상담소가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순 성상담 등 기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성폭력과 관련한 상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1) 3개년 상담현황

연도	상담횟수	상담건수(A)	성폭력상담건수(B)	성폭력상담비율(B/A)
2014	2,185	1,602	1,450	90.5
2015	2,064	1,422	1,308	91.9
2016	2,224	1,501	1,353	90.1
총	6,473	4,525	4,111	90.6

<표1> 최근 3년간 상담통계

###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2.2%가 여성 피해자, 남성 피해자는 6%

2016년 성폭력상담 전체건수 1,353건 중 1,267건(93.6%)이 여성피해자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개소 이래 현재까지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성폭력 주된 피해자가 여성임을 보여줍니다. 2016년 남성 피해자 상담은 전체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2.6%가 남성, 이중 성인은 78.4%

성폭력상담 건수 1,353건 중 성인 남성 가해자가 1,072건(79.2%)으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상담 시 보고된 가해자 성별 중 남성은 전체 1,353건 중 1,258건(93%)이었습니다.

###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10명 중 5명 본인이 직접 상담의뢰, 10명 중 4명은 대리인 상담

성폭력 피해 당사자가 직접 상담을 한 건수는 758건으로 56%, 대리인이 상담을 한 건수는 전체 42.8%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가족/친인척이 상담을 한 건수가 전체 대리인 상담의 46.6%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이웃·친구가 12.6%, 데이트 상대가 12.2%로 뒤를 이었습니다.

###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모든 연령별로 강제추행의 피해가 543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강간(426건, 31.5%)이 뒤이어 전년도와 다르지 않은 양상입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성희롱(179건, 13.2%), 통신매체이용음란(3건, 2.6%), 카메라이용촬영 피해(58건, 4.3%)가 전년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고, 강제추행(543건, 40.1%), 강간 피해(297건, 22.0%)도 작년에 비해 상승하였습니다.

### 6)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5.0%

피해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에서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1,178건(87.1%)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피해 연령별로는 성인의 경우 직장 내에서의 피해가 357건(34.8%)으로, 성인 피해의 약 1/3을 차지하는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은 학교 및 학원 관계인으로부터의 피해가 총 48건(26.8%)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친족 및 친 인척에 의한 피해가 총 36건(20.1%)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어린이와 유아인 경우 친족 및 친/인척에 의한 피해가 각각 46건(49.9%), 20건(55.5%)로 가장 높았습니다.

### 7) 피해자 지원내용

2016년 상담소 피해자 지원은 심리·정서 지원이 59.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법적 지원이 45.1%로 많았습니다.

### 8) 스토킹 피해 상담 세부 통계

#### ① 스토킹 피해의 89.8%는 여성 피해자, 이 중 87.8%는 성인여성

2016년도 한국성폭력상담소 스토킹 피해 상담은 총 49건이었고 그 중 성인 여성 피해가 43건(87.8%)으로 집중된 경향을 보였습니다. 여성 피해자가 44건(89.8%)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한 행동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② 스토킹 가해자 89.8%가 남성, 성인 남성은 87.8%


스토킹 가해자의 성별과 연령은 성인남성이 총 49건 중 43건(87.8%)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 스토킹이 성별화된 폭력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스토킹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93.8%. 이 중 전 현 데이트 상대에 의한 피해가 69.2%로 가장 많고, 직장 내 관계가 14.2%로 뒤이어 스토킹 피해는 총 49건 중 3건을 제외한 46건(93.8%)가 아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전 데이트상대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이 30건(61.1%)으로 가장 높았으며, 직장 내 관계도 14건(14.2%)을 차지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연애 관계나 직장 내 관계 외에도 동호회 1건, 동네사람 1건, 주변 지인 2건, 학교 관계 1건 등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모르는 사람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율은 4%에 불과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특정한 형태로 발생하는 경향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④ 스토킹 피해 양상: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어 일상 속에서 지속되는 경향 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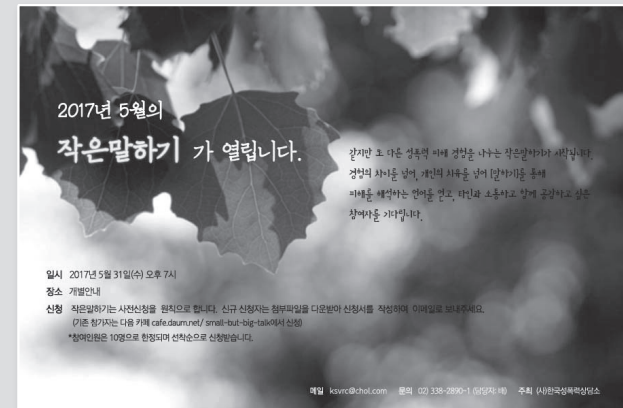
스토킹 피해는 법적으로 규제되는 형태 외에도 다양한 폭력과 괴롭힘 행위가 동반되며 지속되는 형태를 보입니다. 총 49건의 스토킹 상담 건수 외 중복 피해 포함 총 118건의 피해 유형이 집계 되었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연락하는 행위와 거주지나 직장에 갑자기 찾아오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SNS나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 명예훼손이 이루어지는 방식의 괴롭힘 형태도 있었으며, 괴롭힘 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다양한 양태의 협박이 병행되는 경우가 17건(14.4%)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를 감시 혹은 유출하여 괴롭힘 행위를 하거나 사이버 공간상 명예훼손을 동반하는 형태로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⑤ 스토킹 피해 지속 기간: 3개월 이상 피해 지속 38.7% 차지

스토킹 피해는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총 49건 중 19건(38.7%)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1년 이상 지속된 피해 건수도 11건(22.4%)을 차지했습니다. 

# 생존자가 말하는 작은말하기

성폭력 생존자로 살아가는 것은  
온탕과 냉탕을 오가는 것 같습니다.  
상처를 주던 가까운 이들의 반응.  
고소 과정에서 어이없던 일들.  
그럼에도 이겨내려 노력했던 기억들이 혼재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나만의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면서  
누구에게도 얘기해보지 못한 마음을 꺼내볼 수 있게 됩니다.  
듣기와 말하기가 공존하는 공간. 작은말하기에서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보아요.



● 5월의 작은말하기 홍보 웹자보

“ 두 번째 참여입니다.  
 오늘은 '우리'라는 단어가 참 많이 떠오르네요  
 - 사슴

“ 오랜만에 뵈어 참~ 좋습니다.  
 우리 모두 잘 자랐습니다.  
 지난 일은 자양분이 아니지만요.  
 잘 자라 왔어.  
 고생 많았다.  
 이제 모두의 마음에  
 봄이 성큼 다가오길 바래요.  
 - 봄

“ 점점 문을 열고 나가기를  
 어른들이 그러지 않았으면...  
 동심 파괴다 ㅠ  
 - 명아

“ 말하기보다  
 듣는 것에 더 큰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다.  
 들을 준비가 되면. 그때 다시 -  
 내가 들을 준비가 되야  
 다른 사람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겠지 -  
 ...  
 새로운 시작.  
 고통은 이제 끝.  
 - 소중한 엔젤

작은  
말하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7시

“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심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오늘 여기에 올 계획을하며  
 그나마 버텼네요.  
 유독 힘든 저에게  
 힘을 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다음달까지 무사히  
 버틸 수 있도록... ! ^^  
 항상  
 너의 곁에서  
 늘 지켜줄게♥  
 - 은새

“ 나는 누군가를 용서할 만큼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 서진

“ 내가 살아있는 것 이상으로  
 반짝반짝 빛날 날을 기대합니다.  
 모두 다함께 하실 날도 기대합니다.  
 - 푸른나비

“ 다시 오고 싶어요.  
 - S

“ 우리가 여기에서 만난 것  
 - 스스로를 사랑하는 한 방법이였네요.  
 작은말하기에서 또 봐요~ ♥  
 - 지은

〈작은말하기〉 신청방법

본 상담소 홈페이지(www.sisters.or.kr)의 작은말하기 공지글에 첨부된 신청서를  
 ksvrc@chol.com으로 보내주세요.



# 아플 때도 있지만 웃는 날도 반드시 오기에

글\_지우 / 사진\_이동혁

어릴 적엔 마냥 원망스럽기만 했었는데  
당신들이 내 가슴에 새긴 상처 때문에

내가 이토록 더 성숙하게 클 수 있었어요.  
마냥 원망스럽기만 했던 '어른' 이었는데  
이젠 내가 그 어른이 되어 가고 있네요.

꼭 당신들처럼은 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어느새 서서히 나도 모르게 당신들을 닮아가고 있어요.

나를 죽인 건 당신들인데  
왜 난 당신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나요.

밤이 되면 낮에 밝게 웃던 어린아이 같던 나와는 다르게  
세상에서 가장 서러운 여자가 되어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흘려요.

왜 난 당신들을 사랑하면 안 되죠.  
당신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더 조여 와요.

나는 살다가도 나를 괴롭히던 당신들이 생각나서  
웃다가도 울곤 해요.

그럴 때 마다 조금은 너무 무서워요.

나는 그들이 내 가슴에 새긴 상처 때문에  
하루라도 더 빨리 어른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그 상처가 나를 죽였고  
그 상처가 나를 살리고 있네요.

가끔씩은 내 마음의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  
억울할 때도 있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짐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들 그렇게 '이름'을 안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 산티아고에서 찾은 길 \_ 첫 번째 이야기

김다연

혼자 떠난 여행길에서 경험한 성폭력은  
다연님을 생존자의 여정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에세이를 통해 그 여정에 함께해주세요.

(본 글은 다음 호까지 2회 연재합니다.)

"다연아, 산티아고에는 여름에 비가 안와. 그런데도 가뭄이 없다. 왜 그런지 알아? 넌 똑똑하니까 맞출 수 있을 거야."

칠레 산티아고의 전경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산크리스토팔 언덕을 오르던 중이었다. 함께 걷던 캐나다에서 온 아저씨가 내게 질문을 건넸다.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 않았다. 칠레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여서 그런 걸까.

"땡! 잘 생각해봐."

글쎄. 잘 모르겠다. 사실 난 이 무렵 시시콜콜한 문제에 논리 정연한 답을 꺼내어 조각을 맞추어볼만한 여력이 없었다. 며칠간 나를 괴롭혀온 어둡지근한 사진 때문이었다.

#

그 날은 유난히 어스름한 새벽이었다. 나는 남미 여행 중 사나흘 간 동행했던 한국인 할아버지를 배웅하기 위해 피곤함을 무릅쓰고 여기적 일어났다. 아르헨티나 바일로체 호스텔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오직 홀로 여행 중인 딸을 보기 위한 일념으로 배낭만 꾸려 남미 땅을 밟게 되었다고 했다. 그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남미 대륙에서 딸과 헤어진 뒤, 홀로 여행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래서 일정이 맞는 곳까지 함께 동행해달라며, 간곡히 부탁을 했



● 산티아고(이미지 출처: 오마이 뉴스)

다. 어떡하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을 모시고 동행하는 모습을 그려보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나 내게는 약 6개월간의 세계여행을 통해 절실히 배운 철학이 있었다. 눈물을 삼켜야 할 정도로 많은 도움을 받아 왔기에 이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을 잡을 차례라 여겼던 것이었다. 나는 긴 고민 끝에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생각했던 것 보다 훨씬 더 고된 사흘이었다. 환전, 버스표 구입과 같은 간단한 도움을 청하던 할아버지는 어느새 잡다한 통역, 사진촬영, 일정 및 이동루트 등 사사로운 일에도 내 손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어느덧 할아버지의 무료 투어 가이드가 되었던 나는 내 여행을 온전히 즐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나친 요구에 점점 지쳐가던 찰나, 마침내 계획한 루트가 달라 사흘간의 인고 끝에 작별을 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그 날,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다. 이별의 포옹이랍시고 건넨 손에 이끌려다가 그만, 성추행을 당한 것이었다. 낫가에 탐욕스런 숨을 불어 넣으며 가슴을 만졌고, 옷 속에 손을 넣었다. 생각지도 못한 전개에 놀랐던 나는 머릿속이 새하얗게 칠해져서 손을 뿌리치는 것 외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 하고, 작은 탄식조차 내뱉을 수 없었다. 밖으로 도망칠 여력도 없었다. 그저 나

는, 거둬되려는 그 더러운 손길을 거부하며 이불을 뒤집어쓰고 몸을 웅크려버렸다. 우습게도 정말 사고의 회로가 정지되어버린 건지, 내가 지금 당장 도망칠 곳이 오직 침대 위의 이불 속이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더러운 말을 마저 빨다가 결국 시계를 보고는 배낭을 마저 챙기기 시작했다.

이불 속으로 숨은 나는 여전히 온 몸이 파르르 떨리기만 했다. 내가 무슨 일을 당한거지? 이 더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해야 하나? 아니면 저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러 가버리면 그 때 민박 사람들에게 말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지? 갖가지 생각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휴학을 하고, 8개월 내리 억척스레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으로 애뜻하게 준비하여 1년을 계획하고 떠난 세계여행이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강도를 만나거나 비행기 열차 각종 사고를 만나게 되어 혹여 돌아오지 못하는 상상을 하며 두려움이 피어올랐던 여행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마저도 품고 이겨내 보겠다며 떠났던 것이었다. 그토록 내 소중한 여행에 더러운 흠집을 새겨놓다니. 생각이 이쯤 닿자, 요동치던 심장이 점차 잦아들어갔다. 좀처럼 혼란스럽기만 했던 정신도 또렷해지기 시작했다. 두려움과 혼란을 깨부수기 시작했고, 마음 속에 강한 의지가 돌아났다. 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난 반드시 이 일을 넘어뜨리리라. 마침 배낭을 다 꾸렸는지, 소름끼치는 목소리로 버스를 타러 가 보겠다는 할아버지의 말에, 이불을 박차고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좀 전의 끔찍한 일을 하나씩 읊으며 말이다. 당연히 부인을 했고, 나는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겠다는 판단이 들어 거실로 뛰어 나갔다. 사람들이 자고 있는 곳에서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잘못을 날낱이 읊었다. 그는 시간이 촉박하자 마지 못해 시인하기 시작했고, 나는 녹음기를 키며 무릎을 꿇으라 했다. 하지만 조금도 진심이 담겨있지 않은 목소리로 사과를 들어야 했다. 그만 끝도 보기 싫어서 가라고 했다.

괜찮아, 이 정도면 잘했어. 곧 이겨낼 거야, 라는 생각은 엉성하게 맺은 매듭 탓에 시간이 지날수록 무너지기만 했다. 남미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단독방에서 보란 듯이 뻔뻔하게 여행을 하고 질문과 사진을 올리는 가해자 할아버지의 글을 보았기 때문이다. 마음속에 울분이 돌아나 눈물이 툭하고 떨어졌다. 나는 혹여나 또 마주칠까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하지도, 이 도시를 관광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왜 피해자는 고통 받고 가해자는 떳떳하게 여행하는걸

까,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복합적인 생각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결국 일을 크게 만들었다. 나는 내가 당한 사건을 공론화 시켰다. 그러자 갑자기, 할아버지의 딸이 나타나 공개된 녹음 본마저 그럴듯한 이유로 부인했고, 도리어 나를 노인네 꼬신 여자로 몰아가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는 역습을 하기 시작했다.

급기야 나도 고소를 준비하며 한국행비행기를 검색하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다. 마음이 타들어가서 잠을 설치기도, 비참함에 눈물이 펄펄 쏟아지기도 했다. 하루 종일 힘이 없는 내가 안쓰러웠는지, 캐나다 아저씨가 등산을 가자고 했다. 그래서 꾸역꾸역 발을 움직여서 온 곳이 산 크리스토퍼 발 언덕이었다.

#

산티아고에 비도 안 오는데 가뭄이 없는 이유라. 어둡지근했던 사건을 매분매초 되짚아보느라 머릿속이 복잡했던 나는 잡다한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었다. 나는 캐나다 아저씨의 질문에 고민하는 척하다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왜냐하면 산맥 위에 쌓여있는 눈이 녹아 흘러내려서 큰 호수를 만드는 거란다. 그래서 안데스 산맥으로 인해 산티아고엔 비가오지 않아도 풍요로울 수 있단다"

그런데 아-,

"그리고 산맥이 너무 험준한 탓에 적군이 함부로 산을 넘을 수 없도록 지켜 주기도 했지. 겨울에는 찬바람을 막아줘서 기후가 늘 안정적이도록 도와준단다. 그게 안데스 산맥이야"

캐나다 아저씨의 말에 아-, 하고 탄성이 흘러나왔다. 잔잔히 느껴지는 안데스산맥의 자애로운 기운이 근사해서, 저절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다.

안데스산맥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


안데스 산맥 이야기를 들은 이후로, 가슴 속을 깊게 찢었던 고통의 흔적들이 점차 눈이 녹듯 점점 스스로 가라앉아가기 시작했다. 강한 사람이 되라고 내린 고난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불안으로 요동쳤던 감정이 덩덤해

져갔다.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그리고 문득, 여행을 포기하고 고소하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현명하게 이 일을 해결하고 싶었다. 다음날, 여행을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결심과 함께 떠나 발 닿은 칠레의 또 다른 도시, 산 페드로 데 아타카마에서 그믐 날 쏟아지는 별을 보며 소원을 빌었다. 내게 현명히 헤쳐 나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다음날 신기하게도, 며칠 전 가해자 측에 진실을 호소하고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며 보냈던 긴 메시지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카톡으로 자백과 사과를 받아보게 되었다. 공개적인 공간에서 쪼아대며 힘을 모은 것이 죄책감을 이끌어낸 듯 했다. 한국에 있는 언니는 내 소식을 듣고 내게 이정도면 잘 풀린 일이니까, 그만하고 매듭을 지으라 했다. 하지만 이렇게 가벼운 사과로 사건을 종결할 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쉽게 정지버튼을 누를 작정이었다면, 나는 당시 진심 없던 무릎 사과를 받고 바로 멈췄을 것이다. 가슴에 묻어두고 처음부터 없던 일 마냥, 여행을 행복하게 하는 척, 굶아가는 마음을 모른 채 했을 테다.

잠시 숨을 고르고, 아타카마 사막의 지평선너머 희미하게 보이는 안데스 산맥을 바라보았다. 산맥을 아우르는 그 기운을 닮고 싶다는 생각만큼은 강렬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언니가 말한 매듭은 나 자신을 넘어, 이러한 일로 고통 받는 다른 누군가, 특히 여성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맺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고민 끝에 합의의 세 가지 조건을 토하게 되었다. 첫째는 나에게 자필로 된 사과문을 발송할 것, 둘째는 물의를 일으킨 민박집에도 사과문을 발송할 것, 마지막은 합의금으로, 세상에 성폭행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양심껏 성폭력 피해단체에 후원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겠다는 약속을 받아들였다. 가시 걸린듯한 고통이 점점 사그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이따금씩 떠올라 또다시 나를 괴롭게 하기도 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낀 것이 있었다.

말끔히 씻어버려도 되는 기억이 결코 아님을, 고통의 기억을 짊어지고 그 속에서 피워낸 단단함으로 닮은 고통을 가진 누군가에게 힘을 줄 수 있음을. 그리고 차곡차곡 쌓여 먼 훗날 내 산맥을 이룰 거름이 될 기억들임을. 

<다음 호에 계속>

# 자원활동가 김정희님과 동동님을 만나다

상담소 OLD&NEW\_자원활동가편

인터뷰이\_김정희&김지훈(동동)  
인터뷰·정리\_수진\_나눔터 기자단 Meka 1기

상담소의 행사에 참여하면 종종 열심히 일하는 자원활동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상담소에 없어서는 안 될 감초 같은 존재이지요. 상담소가 개소한 1991년부터 자원활동을 하셨던 김정희님과 2015년부터 열심히 활동 중인 동동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이하 '동동')** 안녕하세요, 저는 동동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여기 상담소에서 기자단으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은 잠시 동안 대학생으로 살고 있고요, 빨리 졸업하는 게 당장 제가 바라는 꿈이에요. 빨리 졸업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하고 싶은데, 졸업해도 그건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오버워치라는 게임에 빠져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요. 원래 게임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는데 이 게임이 너무 좋아서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김정희(이하 '정희')** 서울지방교정청에서 일하는 김정희입니다.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언제나청춘'? 그런데 내 나이면 여전히 청춘 아닌가? (웃음) '에너지 이저'나 '긍정에너지' 같은 거로 표현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에너지가 좀 많은 편이라.



● 김지훈(동동)

**☞ 상담소와의 첫 만남이 궁금합니다. 상담소를 어떻게 찾아오셨고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동동** 2015년에 상담소 홈페이지에 ‘술과 약물을 이용한 성폭력 방지 캠페인(#그건\_강간입니다)’ 자원활동가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고 지원했어요. 실례는 마음으로 첫 회의를 갔던 기억이 나요. <#그건\_강간입니다> 캠페인은 남성이 주변의 연대자가 아니라 주체적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는 것에 그 의미가 컸지요. 저 역시 그 주제로 당시에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던 차여서, ‘남성성 김장하기’ 좌담회에 패넬로 참여했어요. 그때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 캠페인 이후로 기자단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자주 상담소에 방문하고 있어요.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인연이네요!

**정희** 대학생 2학년 1학기 때 여성학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지금도 불평등한 사회이지만 그 때는 불평등이 더욱 심했기 때문에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친구들과 여성 문제에 대해 대화를 하면 자신은 예외라고 생각하거나 성범죄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여성 문제에 대해 같이 얘기하고 방법을 찾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차에 상담소 초기 멤버이신 정경자 선생님께서 오셔서 특강을 하신 거죠. 초기라 선생님들도 이제 막 대학원을 졸업해서 사회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첫 발을 내딛은 거라 상담소에 대한 애착이 컸어요. 선생님들도 젊으시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가족적인 분위기를 많이 느꼈죠. 토요일에 주로 자원봉사를 했는데, 거기 밥술이 있어서 같이 밥도 먹고 하면서 지냈어요.

**☞ 지금까지 상담소와 함께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은 어떤 날인가요?**

**동동** 아무래도 2016년 2월에 신촌에서 했던 ‘동의하고 하는 행진’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페미니즘 구호를 외치며 거리 시위를 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그때 당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행진하는 일은 ‘3.8 여성의 날’을 제외하고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거든요.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강간”이라는 굉장히 당연하지만 사람들이

잘 모르는 메시지를 담은 구호를 사람 많기로 유명한 신촌 거리에서 외칠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잠깐이지만 해방감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어요.

**정희** 김\*\* 김△ 사건 때 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구명 운동을 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네요. 전 뉴스를 통해 그 사건을 처음 접했는데, 김△이란 사람이 강도짓을 해 검찰고위직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그런데 김△의 아버지가 상담소에 와서 상담을 하면서 진상이 밝혀지게 됐어요. 계부가 의붓딸을 어렸을 때부터 강간했는데, 그 여자분이 대학교에 와서 사귀던 남자친구가 김△인 거죠. 여자친구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김△이 계부를 찾아가서 딸을 제발 놔달라고 부탁을 해도 듣질 않으니 격분해서 살인을 저지른 거예요. 자원활동가들이 서명 운동이나 대학교를 돌아다니며 사건을 알리고 그랬어요. 그 때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사건 이후에 근친간 성폭행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어 기억이 남네요.

**☞ 동동님은 앞으로 상담소에서 해보고 싶은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인가요?**

**동동** 상담소에서 “신나는 클럽” 행사를 여는 거예요. 춤을 좋아하고 신나게 추고 싶어서 클럽을 가도 원치 않는 스킨십과 불편한 분위기로 클럽에 가기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상담소에서 그런 걱정 없이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행사를 열어서 모두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놀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열고 싶어요.

**☞ 이번엔 정희님께 여쭙보고 싶어요. 상담소 활동이 선생님께 미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희** 학생 시절 학교 내에서는 소비자협동조합(현재 생활협동조합)에서 일했었고, 밖에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환경 관련된 시민모임에서 활동했어요. 일상적인 변화, 지역사회 내에서의 변화에 관심이 많았던 거죠. 대학생 때 이런 활동들을 했던 게 지금은 저의 신념으로 남아있어요. 살아가면서 다른 길로 새려고 하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준이 되어주는 거죠. 어떠한 선택을 할 때 나중에 덜 후회할 수 있는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고요.



● 김정희

**🕯 나는 이런 활동가가 되고 싶다, 또는 이런 활동가로 기억되고 싶다는 게 있나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동동** 딱히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활동가가 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어디에 주목 받기 보다는 그냥 사람들의 시선 밖에서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을 책임지는 활동가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늘 시선의 예민한 감각을 잃고 싶지 않아요. 이걸 유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고 또 조금 고통스럽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잃는다는 것이 제가 바라는 것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정희** 분위기 메이커였던 활동가로 기억되면 좋겠네요. 초기에는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막내였던 제가 자원봉사자들의 연락망을 맡았는데, 한 마디로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를 한 거죠. (웃음) 아무래도 처음 오면 친해지기 전엔 서먹한 분위기가 있으니까 빠지기 쉬웠는데, 막내가 연락해서 나와주라고 하면 다들 나오고 그랬었어요. 또 봉사자들이 외롭다는 생각이 안 들게 노력하기도 했고요.

**🕯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 해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동동** 제가 사실 상담소에서 그렇게 대단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저보다 훨씬 오랫동안 활동하신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인터뷰 한다는 게 매우 어색하네요. 다만 제가 활동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끈게 서있다는 것을 상담소 건물 1층에 새겨져 있는 후원자 명단을 보면서 항상 느끼고 있어요. 물론 저도 이 상담소가 단단히 활동을 이어나가는 데에 매달 조금씩 보태고 있고요. 한 명 한 명의 관심과 연대가 이 세계를 좋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늘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앞으로도 계속 지지해 주고 계속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저희끼리는 활동하면서 봉사가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 많이 배워간다고 얘기를 나눴었어요. 활동하면서 문제의식도 느끼고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많이 고민하면서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과 함께 얘기도 나누니까요. 상담소가 체계적인 시스템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좋은 장이 되어주고 있으니 매 순간에 충실하게, 즐겁게 활동했으면 좋겠어요. 🕯

# 반성폭력 운동의 맥락에서 보는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앞\_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활동가

본 상담소는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이하 '군인권네트워크')와 연대하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운동에 힘쓰고 있습니다.

5월 24일, 총 10명의 의원이 모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2017년 1월, 제가 성문화운동팀 신입활동가로서 처음으로 간 기자회견은 <한국판 소도미법! 동성에 처벌법! 군형법 상 '추행'죄 폐지를 위한 1만 2204명 입법청원 제출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동성 간 성관계를 '추행'이라고 규정하면서 형사처벌하는 법, 군형법 제92조의6의 폐지를 요청하는 시민 1만 2천여명의 서명을 국회에 전달하는 날이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추행)은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법조항입니다. 법조항의 제목이 '추행'죄이기 때문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추행'은 성폭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92조부터 제92조의 5까지 기간, 유사기간, 강제추행,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성폭력 미수범에 대한 처벌을 별도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추행'죄는 무엇을 위한 법일까요? 군형법 제92조의6에서 '추행'은 쉽게 풀어서 '추한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법조문은 항문성교를 '추행'의 대



표적 예시로 들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실상 법 자체가 동성 간 성적 행위는 '추행'이므로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군형법 제92조의6이 동성애 혐오를 기반으로 동성애자 군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이라는 사실은 명백합니다. 이 법은 동성 간 합의한 성관계를 범죄화하고, 동성 간 성폭력의 피해자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가해자와 같이 '추행'죄로 처벌합니다. 게다가 동성 간 성폭력의 가해자는 성범죄가 아닌 '추행'죄로 축소 처벌하고 심지어 가해자가 이성애자일 경우에는 '성적 만족'이 없었다는 이유로 불처벌하기도 합니다. 이는 성폭력의 원인을 '성적 만족'과 '성욕 해소'로 보는 잘못된 통념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동성 간 성행위와 성폭력을 혼동하게 함으로써 동성애혐오를 재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군형법 제92조의6은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합니다.

입법청원 제출 이후, 실제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하기 위해서는 군형법 개정안을 발의해줄 국회의원 10명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군인권네트워크는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발의를 요청하고 입법의 필요성을 설득하는 한편, 어떻게 하면 대중적인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반대 세력의 혐오와 선동에 대응할 준비를 하면서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지



난 4월, 대통령 선거 기간에 성소수자 인권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불거지고, 육군이 불법 수사를 통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군형법 제92조의6을 폐지해야 할 필요성은 점점 절실해졌습니다.

마침내 5월 24일, 정의당 김중대 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정의당의 노회찬, 심상정,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권미혁, 진선미 의원, 그리고 무소속인 김종훈, 윤종오 의원 총 10명의 의원이 모여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날은 육군보통군사법원이 동성애자 군인 A 대위에게 유죄를 선고한 날이기도 해서 입법 발의의 의미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발의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금태섭, 박주민 의원도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에 함께하겠다고 선언하여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는 군대 내 젠더감수성을 높이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일입니다. 군형법 개정안이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부디 발의 의원들과 동참 의원들에게 지지와 독려를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

## 할레의 아픔을 딛고 피어난 사막의 꽃

영화 <데저트 플라워>를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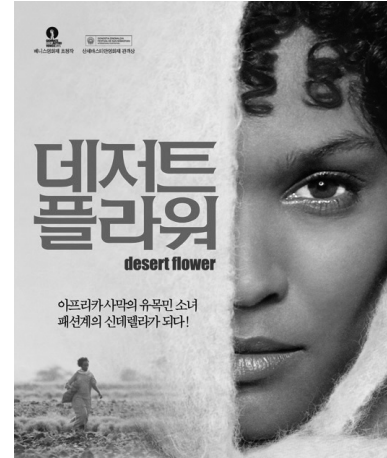
곰지\_나눔터 기자단 Meka 1기

매일 수많은 아프리카의 소녀들은 성인식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끔찍한 젠더 기반 폭력인 할레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모델이자 여성인권운동가인 와리스 디리는  
할레 문제를 세상에 공론화시킨 인물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영화 <데저트 플라워>에서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슈퍼모델 와리스 디리, 그녀의 이름은 소말리아어로 사막의 꽃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소말리아의 유목민 가정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을 보냅니다. 그녀는 조혼을 피해 소말리아를 떠나 런던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며 세계적인 모델로 성장하게 됩니다. 백인 밖에 없었던 당시 모델계에서 소말리아 출신의 그녀는 선구자적인 흑인 모델이었습니다.

그녀는 집을 나와 떠도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성폭력 위협을 겪습니다. 영국 영주권을 얻기 위해서 시작한 위장 결혼 생활 중에도 역시 폭력을 마주합니다. 그녀가 겪었던 수많은 질곡의 나날 중, 그녀의 삶을 바꿨던 단 하루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기 절제 수술, 할레를 당했던 날이었죠. 당시 그녀의 나이는 3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너무 아픈 것은 여자가 됐다는 신호야”, “잘린 여성(Cut woman)이 좋은 여성이야”라고요. 모든 여성이 이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믿었던 와리스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란 걸 알았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남성 중심적 전통 문화와 가족이라는 권위가 가한 여성 폭력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레를 경험한 여성은 돌이키지 못하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습니다.



데저트 플라워(Desert Flower, 2009)

감독: 쉐리 호만  
출연: 리아 키비디, 샬리 호킨스

할레 시술 중에는 출혈, 감염 등의 위험이 높으며 많은 여자아이들이 이로 인해 죽습니다. 할레를 받고 살아남은 여성들은 배변 활동, 성생활 등 일상생활에 평생 동안 지장을 받습니다. 게다가 많은 소녀들은 할레의 후유증으로 인해 교육 과정에서 이탈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매일 6천명의 여성이 할레를 당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전통적 관습으로 남아있는 할레는 민족주의라는 이념 속에서 여성이 희생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할레가 여성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억압을 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할레는 민족의 일원이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관습이며 민족 내부에서 널리 받아들여진 지배 담론이 되어버렸습니다. 영화 속에서

와리스가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 산부인과에 찾아가는 것을 소말리 남성이 민족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족의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은 희생당하고 억압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와리스는 위기와 아픔을 이겨내고 후에 세계적인 슈퍼모델로 거듭나고, 처음으로 많은 여성들이 겪고 있는 할레 문제를 국제적으로 공론화 시킵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 다큐멘터리 촬영, 책 저술 등 왕성한 활동을 통해서 여성 할레와 아프리카 여성 인권 탄압 현실을 세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1997년, UN은 여성 할레를 근절하기 위해 와리스 디리를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특별 대사로 임명하였으며 현재까지도 그녀는 <와리스 디리 재단>을 설립하여 왕성한 여성 할레 철폐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와리스가 보여주었던 치유의 에너지, 부당함에 대해 소리 높여 말할 수 있는 용기는 세상에 변화를 촉구하였습니다. 와리스 디리라는 한 여성에서 시작한 변화의 울림은 더 큰 변화로 이어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앞으로 그녀의 노력이 아프리카 소녀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



# 여성주의 자원활동의 본거지, 나눔터 기자단 “Meka”의 탄생

아무개제인 \_ 나눔터 기자단 Meka 1기

나눔터 기자단에게 드디어

‘메카(Meka)’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탄핵정국에 이어 대선정국을 지나는 기간 동안

‘메카’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월의 중반, 나눔터 80호 기자단의 첫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 날의 소독은 그동안 ‘나눔터 n호의 기자단’으로 불렸던 이 모임의 이름을 ‘메카(Meka)’라고 정한 것이었습니다. 동동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메카(Meka)’라는 이름은 게임 ‘오버워치’에 나오는 용어로, 한반도를 공격하는 거대 기계 괴물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로봇 군대를 말합니다. 게임에서 ‘메카’의 역할이 여성을 비롯한 소수자들의 편에 서서 노력하는 상담소의 역할과 잘 어울린다는 것이 기자단의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메카’라는 이름에는 ‘메카’라고 하면 떠오르는 ‘중심지, 본거지’라는 말뜻처럼 상담소가 사람들에게 필요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곳이었던 좋겠다는 바람과 상담소의 활동을 열심히 알려겠다는 기자단의 다짐이 담겨있습니다.

기자단 메카의 2차 모임은 3월 1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날은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전대통령의 탄핵이 전원일치로 인용 결정된 날이기도 합니다. 이런 역사적인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기에 우리는 기획회의를 가장한(?) 기념 파티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모임에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기획안에 따라 신속하게 역할 분담을 하고 다음 세미나 주제를 정한 뒤 곧이어 탄핵 인용을 기념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 진지하게 공부하는 설정샷의 ‘Meka’

대선 주자를 뽑기 위한 당내 경선 운동이 한창이던 3월 후반에 이루어진 세미나의 주제는 후보들의 여성정책이었습니다. 그중 국민의당이 지금의 ‘여성가족부’를 ‘성평등인권부’라는 이름으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 데에 대해 기존의 ‘여성’과 ‘가족’이라는 단어가 포괄할 수 없는 것들이 ‘성평등’이라는 상징성 아래 모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고, 부서의 이름은 그 부서가 지향하는 바를 함의하는데 ‘성평등인권부’라 하면 다른 인권문제들에 섞여 여성정책의 비중이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당들이 내놓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모두가 아쉬워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대다수 정당들이 진정으로 문제의식을 갖고 고민을 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았고 페미니즘이라는 시류에 편승하기 위해 기존의 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4월 세미나는 성소수자들의 삶과 고민을 다룬 영화를 공동체 상영으로 함께 보았습니다. 이번에 같이 본 영화는 이동하 감독의 데뷔작인 ‘위켄즈’라는 다큐멘터리로, 게이 합창단 ‘G-Voice’의 단원들이 주인공입니다. 영화는 단원들의 일상적인 모습과 이들이 무대에 오르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미나를 며칠 앞둔 시점에 이뤄진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화제가 된 문재인 후보의 동성애 반대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토론회 직후 문재인 후보는 동성애가 아닌 동성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해명하였고 후보자는 대선후보 토론회에 동성애가 주제로 오른 것은 처음이었다며 화제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에 의의를 두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인식이 드러난 사례였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따라가며 이러한 사회적 인식 속에서 성소수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그리고 나 또한 무지하여 이들을 폭력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았나 (아마도 처음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무대는 밝지만 무대 뒤편은 어둡듯이 이 영화 또한 밝고 유쾌하지만 그 이면에 대해 자꾸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상반기 동안 '메카' 세미나 후기였습니다.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저만의 단편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보다 입체적인 시각으로 사안을 바라볼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하반기에도 메카 활동은 계속 됩니다. 상담소에서는 하반기에 이안젤라홀을 안전하고 깨끗한 '클럽안젤라'로 탈바꿈하는 등의 재밌는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담소가 뛰는 곳엔 늘 메카가 함께할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 최란 주니어 온이의 상담소 첫 나들이

감\_본 상담소 성문화운동팀




란에게 작년은 상담소의 사무국장으로 연일 터지는 이슈에 정신없이 움직여야 했고, 석사논문 「이미지착취 성폭력 실태와 판단기준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준비로 심신이 피로했던 시간이었을 거예요. 폭풍 같던 그 때 란의 품속에서는 온이가 자라고 있었지요. 아마도 최우수논문상의 일등공신은 온이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업무 인수인계를 마치고 바로 다음 날 란의 순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정일보다 3주 빨리 세상구경을 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나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상담소에 첫 나들이에서 본 온이는 그 누구보다 여유롭고 평온한 아이였습니다.



세상에! 어쩔 이렇게 또렷하고 맑은가요!

첫 상담소 나들이 두 시간동안 한 번도 우는 소리 없이 낮잠도 푹 자고 평화롭게 지내다가 갔답니다. 거의 모든 활동가들이 서로 안아보겠다고 경쟁을 하고요. 어쩔 이리 순하고 고운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했어요. 온이를 바라보는 활동가들 눈에서는 하트와 꿀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온아~ 지금처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라~ 

## 상담소 활동가 들고나기



누구보다 열심히 생존자를 지원하고 성문화 개선을 위해 일했던 활동가들이 상담소를 떠나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날개를 달았습니다.

성문화운동팀 있을

여성주의상담팀 차차

부설연구소 울림 하루

부설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어진, 김영순



그리고 전 활동가들의 빈자리를 채워, 큰 에너지를 몰고 온 새로운 활동가들을 소개합니다.

성문화운동팀 앞

여성주의상담팀 배

부소장 오매

부설연구소 울림 시나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백목련, 유네



●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오매, 배, 앞, 유네, 시나, 백목련

## 아끼어이 맘빠 주는 나무

2016년 12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시는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 >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들, 환영합니다.

권서현, 김규원, 김문영, 김서진, 김선례, 김수잔, 김신아, 김신희정, 김애란, 김양지영, 김은희, 김지민, 김진근, 김출배, 남정규, 문지원, 박지형, 박찬경, 성귀석, 심은희, 심조원, 오연희, 이창희, 이혜지, 임수민, 임여경, 장미소, 장철우, 전수인, 전수현, 정민수, 정보배, 정승범, 정준혁, 최우영, 최희중, 표승휘, 한은희, 허민숙 (이상 39명)

### > 한결같은 응원을 보내주시는 후원회원님들, 애정합니다~

(주)문학동네, aaami, 가이안선, 강가람, 강가에, 강경인, 강공내,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원, 강동화, 강동록, 강버들, 강보희, 강수지, 강영, 강영순, 강영화, 강인화, 강정희, 강푸른, 강현구, 강희진, 계경문, 고경란, 고경자, 고금이, 고보경, 고성관, 고예린,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태우, 공춘옥, 광경화, 광상아, 광옥미, 광윤이, 광현지, 구민희, 구현우, 권구홍, 권김현영, 권쌍이, 권소영, 권예선, 권인선, 권인숙, 권정, 권주희, 금철영, 김가연, 김가영, 김가희, 김경선, 김경아, 김계진, 김광만, 김광진, 김기태, 김기혜, 김나연, 김나영, 김남형, 김남이, 김다미, 김다연, 김다현, 김대숙, 김도홍, 김도희, 김동령, 김동현, 김동희, 김두나, 김돌순, 김명진, 김모래, 김미경, 김미라, 김미랑, 김미선, 김미영, 김미옥, 김민규, 김민기, 김민정, 김민주,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보연, 김보화, 김삼미, 김상정, 김샛별, 김서화, 김석제, 김선경, 김선미, 김선아, 김선에, 김선영, 김성동, 김성문, 김성미, 김성자, 김성훈, 김성희, 김소라, 김송이, 김수, 김수경, 김수민, 김수민, 김수진, 김순영, 김순자, 김승연, 김아람, 김아름, 김애라, 김양지, 김양희, 김엘림, 김연경, 김연경, 김연우, 김연희, 김영미, 김영선, 김영숙, 김영선, 김영환, 김예람, 김예지, 김옥주, 김용란, 김원식, 김원우, 김유민, 김유진, 김윤경, 김윤정, 김윤희, 김은경,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 김은하, 김은혜, 김웅진, 김이슬, 김이슬, 김인숙, 김인혜, 김일률, 김재원, 김재원, 김재윤, 김정민, 김정완, 김정혜, 김종용, 김종철, 김종현, 김종희, 김주영, 김준호, 김지선, 김지연, 김지영,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훈(김혜리), 김지훈(동동), 김진주, 김채연, 김재주, 김춘화, 김탁환, 김태진, 김태현, 김하나, 김하나, 김하정, 김학실, 김한선혜, 김혜경, 김혁, 김현수,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경, 김혜경, 김혜린, 김혜림, 김혜민, 김혜숙, 김혜영, 김혜원, 김혜윤, 김혜정, 김혜정(오매), 김혜진, 김홍미리, 김화숙, 김화영, 김효주, 김효진, 김희경, 나미나, 나선영, 나윤정, 나재은, 남민영, 남수민, 남슬아, 남인순,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남혜정, 노경란, 노미선, 노복미, 노선아, 노유성, 노재봉,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노희설, 디트리그룹(주), 도병욱, 도상금, 라갈자, 류란, 류호윤,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미라, 문성훈, 문수연, 문유석, 문재연, 문지영, 문진오, 문효진, 문희영, 민정원, 박경훈, 박다위, 박덕민, 박미라,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현, 박민주, 박보영, 박상훈, 박상희, 박서원, 박선희, 박설희, 박성용, 박성주, 박성희, 박세민, 박소라, 박소림, 박수경, 박수연, 박수지, 박수진, 박숙미, 박순복, 박아름, 박아름, 박아이린(Park Aileen), 박영수, 박영주, 박애리, 박윤미, 박윤미, 박은미, 박은자, 박은지, 박은진, 박은혜(이준기), 박은희, 박인기, 박성순, 박정연, 박정오,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훈, 박종선, 박종용,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지현, 박진, 박진숙, 박진영, 박진표, 박창경, 박현달, 박현배,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혜하, 박효진, 박희은, 박희정, 방기연, 방은제, 배성신, 배수현, 배영자, 배은경, 배자하, 백경훈, 백명숙, 백미선,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윤정.

백인애, 백지선, 백현, 변계희, 변순임, 변은미, 변필진, 상복스님, 서권일, 서명호, 서미란, 서민자, 서순진, 서승연, 서용완, 서인석, 서정애, 서정연, 서정표, 서지은, 서태자, 서현규, 서효원, 서희순, 석승민, 선희갑, 설연자, 성병한, 성예담, 손경이, 손관연, 손명구, 손명화, 손미연, 손연성, 손우성, 손유진, 손준성, 송민성, 송석진, 송수영, 송승훈, 송용원, 송원규, 송은숙, 송현민, 신동현, 신명숙, 신성용, 신윤진, 신은재, 신정혜, 신종훈, 신지혜, 신진희, 신필규, 신한나, 신현, 신혜은, 심수희, 심혜련, 안민, 안병숙, 안보라, 안분순, 안소진, 안윤정, 안재훈, 안정은, 안주리, 안지윤, 안철민, 안조룡, 안태희, 안혜수, 안형윤,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영희, 양은주, 양은혜, 양정운, 양창수, 양현경, 양현규, 양효준, 양진희, 오경희, 오민설, 오선곤, 오세규, 오세희, 오수연, 오승민, 오승이, 오승환, 오유미, 오재형, 오정진, 오주연, 오현정, 오현주, 우광재, 우성희, 우안녕, 우완, 원경주, 원민경, 원민혜, 원선아,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유경희, 유계옥, 유민수, 유보람, 유성혜, 유세정, 유숙조, 유여원, 유영숙, 유예리, 유지아, 유지혜, 유진, 유한회사 체리즈, 유한회사미디어얼다, 유현미, 윤나래, 윤범석, 윤소정, 윤수련,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연숙, 윤영란, 윤영수, 윤영숙, 윤영호, 윤영훈, 윤은정, 윤자영, 윤정희, 윤지원, 윤지원, 윤희연, 윤희영, 음선화, 이가람, 이건정, 이경미, 이경숙, 이경은, 이경하, 이경호, 이경호,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나영, 이남주, 이다은, 이다정, 이대명, 이동구, 이동규, 이동숙, 이동원, 이동현, 이명숙, 이명선, 이문주, 이미정, 이민휘, 이복희, 이부덕, 이상미, 이상재, 이상준, 이세륜, 이선영, 이성수, 이성진,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희, 이수안, 이수진, 이수진, 이슬기, 이승구, 이승숙, 이승진, 이시현, 이연실, 이연정, 이영근,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주, 이영택, 이용창, 이용택, 이우진, 이원경, 이원수, 이원홍, 이우정, 이윤상, 이윤선, 이윤희, 이은, 이은비,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지, 이인숙, 이인환, 이재순, 이재원,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희, 이준범, 이준형, 이지민, 이지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행, 이지혜, 이지혜, 이지훈, 이진아, 이창원, 이태숙, 이태호, 이혜원, 이향심, 이현숙, 이현정, 이현희, 이혜경, 이혜경, 이혜란, 이혜실, 이혜정, 이호진, 이홍연, 이화진, 이희수, 이희화, 임건호, 임경진, 임동훈, 임서영, 임선자, 임유영, 임유청, 임주희, 임지숙, 임형숙,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혜, 장미정, 장성연, 장성희, 장영아, 장영애, 장예지,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은영, 장익수, 장재은, 장정희, 장진, 장혜란, 장효정, 전미숙, 전민주, 전병미, 전세화, 전아람, 전연배, 전영호, 전영옥, 전유경, 전유미, 전은유,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해영, 정경수, 정경애, 정광자, 정교화, 정규원, 정기영, 정다희, 정대근, 정대기, 정동연, 정두영, 정문영, 정민이, 정보람, 정복련, 정선미, 정소린, 정수연, 정수연, 정숙경, 정슬아, 정여진, 정영미,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은선, 정인호, 정정기, 정종인, 정준애, 정지윤, 정지은, 정지현, 정지훈, 정진숙, 정진숙, 정진화, 정현주, 정혜윤, 제갈향선,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동현, 조무호, 조민우, 조서연, 조선주, 조성화, 조소연, 조소연, 조영선, 조용연, 조윤경, 조은샘,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설, 조인숙, 조일, 조정은, 조지혜, 조진희, 조한이, 조한철, 조혜민,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원형, 주희진, 지승경, 지인숙, 지인순, 진세록, 차선주, 차성안, 차인순, 차현수, 차현영, 채송희, 채우리, 채현숙, 천정환, 최경식, 최근우, 최기영, 최대연, 최동석, 최란, 최미선, 최미숙,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신혜, 최아림, 최연순, 최영주, 최용경, 최양열, 최용득, 최원일, 최유진, 최윤수, 최윤정, 최윤정, 최은영, 최은영, 최은정, 최정은, 최지나, 최지녀, 최지영, 최지은, 최진경, 최진안, 최효선, 추민주, 추정희, 추지현, 탁수정, 하다영, 하연수,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주현,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민지, 한보경, 한승진, 한승희, 한영미, 한이계영, 한일아, 한재현, 한정림, 한채윤, 한희정, 함경진, 허남주, 허라금, 허선원, 허성희, 허은주, 허이화, 허준석, 허지용, 허혜진, 현정순, 현호정, 혜장스님, 홍광용, 홍만희,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숙기, 홍은정, 홍일선, 홍주연, 홍진경, 홍창락, 홍혜선, 황미선, 황선우, 황성기, 황성임, 황숙희, 황순경, 황재호,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이상 858명)

> 변치않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평생회원님들, 고맙습니다~

강대열, 강명득, 강정자, 강지원, 강진자, 김경현, 김미주, 김정희, 김효선, 나인선, 남우석, 노길용, 노주희, 박미란, 박부진, 박성환, 박윤숙, 박진우, 배경, 배순희, 배정철, 송미현, 신상호, 오주현, 유정화, 이경환, 이덕화, 이명숙, 이문희, 이미경, 이영희, 이유미, 이우정, 이혜사랑, 이현상, 임미화, 임순영, 장윤경, 장철우, 조인석, 조일래, 최보원, 최영애, 최진주, 허동호, 홍순기 (이상 46명)

> 생활인들에게 더 없이 큰 힘이 되어주시는 열린터 후원회원님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강재득, 강지아, 고화정, 권은숙, 금보경, 김경태, 김경호, 김경희, 김미란, 김민경, 김소연, 김수잔, 김수진, 김승일, 김아리, 김연정, 김요한, 김유숙, 김유정, 김주연, 김지윤, 김지혜, 김차연, 김태연, 김현숙, 김혜연, 김효진, 김효진, 김희정, 나경미, 나유미, 남영미, 류종현, 문숙영, 미씨유럽, 민슬기, 박명숙, 박명식, 박상희, 박섭형, 박아름, 박연숙, 박인필, 박정옥, 박준숙, 박지선, 박현희, 박희연, 박희주, 배정원, 백미순, 서법원, 서진희, 서해인, 소롭티셔츠클럽, 손동희, 송미현, 신겸우, 신경혜, 심진섭, 심현실, 안분순, 안효선, 안효진, 안홍자, 양미초, 양윤희, 오선호, 오송환, 오정희, 유결(고운별), 유미란, 유선옥, 유선원, 유애니, 유애리, 유진영, 유혜숙, 유수연, 이정선, 이계형, 이금란, 이명희, 이미홍, 이민휘, 이병주, 이상구, 이상연, 이성실, 이성아, 이수연, 이어진, 이에담, 이옥영, 이원경, 이재현, 이정봉, 이정화, 이종국, 이종근, 이주섭, 이찬희, 이태복, 이향신(거북), 이향화, 이호중, 임유영, 임치선, 임치순, 장다혜, 장미소, 장희진, 진승기, 전해영, 정순희, 정은희, 정정희, 정정희(사자), 정창수, 조정진, 조성은, 조윤기, 조은희, 조중신, 조현아, 주혜명, 주혜정, 지니위니강서센터(이주란), 진태란, 채송희, 최가람, 최강현, 최서림, 최윤미, 최정림, 최정임, 최정희, 추주형, 하동호, 한국아마자카마작(주), 한영규, 한전부녀회, 허복옥, 허정연, 홍남영, 홍윤기, 황동하, 황선권, 황유나, 황은순, 황주영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전체회원 일괄등록 안내 }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하실 수 있도록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부설 연구소 올림, 부설 쉼터 열린터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전체회원을 일괄등록 합니다. 등록을 원치 않으시는 회원님께서서 상담소 또는 열린터로 연락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미납된 후원회비 재출금 안내 }

잔액 부족 등의 이유로 계좌에서 후원회비가 출금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월출금일 5일(평일 기준) 이후 1회 재출금을 시행합니다. 재출금 시에는 해당 월의 미납된 금액만이 출금되며, 약월에 미납된 금액이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 후원회비 납부관련 문의 혹은 회원정보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등) 변경 방법 }

상담소, 부설 연구소 올림 회원 문의: 감이 02-338-2890, ksvrc@sisters.or.kr  
부설 쉼터 열린터 회원 담당 문의: 백목련 02-338-3562, yeolim94@hanmail.net

# 훈훈한 기부



상담소와 열림터, 울림에 보내주신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과 선물에 감사드립니다.

## { 상담소 }

라부 회원님의 새콤달콤 꿀 한 상자  
박근하 변호사님의 시원한 배 한 상자  
이경환 이사님의 과일종합세트 한 상자  
god 데니안 팬클럽의 쌀 120kg  
미소 상담활동가님의 향기로운 커피와 원두  
송이송 회원님의 달콤한 쿠키 한 상자  
김혜란 후원자님의 안토시아닌 흑미 4kg  
김선화 후원자님의 커다란 수박 한 통  
천주교성폭력상담소의 비상식량 라면 두 상자  
닉스 상담활동가님의 상담부스 프린터기  
연세대 간호학과님의 달콤하고 어여쁜 파르페 두 상자  
조화 전 활동가님의 싱그러운 체리 다섯 팩  
최란 사무국장님의 신선하고 탐스러운 메론 두 상자  
이영 감독님의 채식반반피자 한 판  
김성자 후원자님의 짹짹한 장조림 두통  
익명의 후원자님의 상큼상큼한 꿀 두 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신선한 요구르트 50개와 꿀 두 상자  
익명의 후원자님의 시원한 음료세트

## { 열림터 }

언니네 텃밭 주 1회 유기농 아채꾸러미  
암스테르담 제과점 주 1회 건강빵  
황반야님 월 1회 원예치료용 생화  
서울시립청소년건강센터 나눔봄 생리대 1BOX  
비온뒤무지개재단 옷 5BOX  
존타클럽 지스바우위원회 약식, 초콜렛, 커피  
미씨유럽 이경애님 핸드메이드 머리핀, 과자 1BOX  
장혜경님 삼푸&바디워시 40SET  
이미경님 생활인 명절용돈  
윤지영님 티라미수케이크 만들기 재료  
채송희님 빵 한 바구니  
서울시 생리대 7BOX  
서서울농협 쌀 80KG  
한국여성익집 화장품 1BOX  
시민모임 발자국 쌀 50KG

